



K3 GT 5도어는 출발부터 중·고속에 이르기까지 유감없이 발휘되는 발군의 ‘가속력’,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안정감’, 그리고 강화된 ‘제동 성능’ 등을 갖춰 스포츠 드라이빙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의 관심을 잡아 끌고 있다.
 사진제공 | 기아차

‘오버부스트’ 폭발적 가속력… “진짜 K3 맞아?”

가장 대중적인 준중형 세단인 기아차 K3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지닌 심장을 이식해 펀투드라이빙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차가 K3 GT다. 1.6 터보 GDI 엔진이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파워를 발휘하고, 급가속 시 순간적으로 토크량을 높여 가속력을 끌어 올리는 ‘오버부스트’ 기능도 있어 스포츠 드라이빙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의 관심이 뜨겁다. 경기도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왕복 150km 구간에서 K3 GT 5도어 모델을 시승했다.

●디자인·연비에 성능까지 갖춘 고성능 모델

기아차는 시승전 브리핑을 통해 K3 GT 초기 계약 현황을 공개했는데 K3 GT 5도어 모델이 80%, GT 플러스 트림이 75%를 넘어섰다고 한다. GT 5도어 모델에 플러스 트림이면 판매가격이 2460만원부터 시작한다. 제법 높은 가격이지만 이 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볼륨 모델은 아니지만 확실한 마니아 층을 형성할 수 있는 차가 바로 K3 GT다.

이날 시승은 고객 선호 트림인 K3 GT 5도어 플러스 모델로 진행됐다. 1.6터보 엔진과 7단 DCT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출력 204마력(PS), 최대토크 27.0kgf·m의 스포티한 주행성능을 가진 차다. 일상 가속영역인 1500~4500rpm의 꽤 넓은 범위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초기 출발부터

204마력 1.6 터보 GDI 엔진 탑재 S모드 경쾌한 가속…젊은층 어필민첩한 핸들링·고속 코너링 안정다소 비싼 가격·승차감은 아쉬워

기아차 K3 GT 주요 제원		
구분	K3 GT 5도어	K3 GT 4도어
전 장(mm)	4,510	4,640
전 폭(mm)	1,800	1,800
전 고(mm)	1,440	1,435
축 거(mm)	2,700	2,700
엔진 배기량	1,591	1,591
최고출력(ps)	204	204
최대토크(kgf·m)	27	27
복합연비(km/L)	12.1	12.2
 (18인치 올시즌 타이어)	(18인치 올시즌 타이어)	(18인치 올시즌 타이어)



기아차 ‘K3 GT 5도어’ 내부 인테리어

중·고속에 이르기까지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의 가속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무엇보다 가속력은 발군이다. 기어 노브를 S 단에 놓으면 곧바로 스포츠 모드로 바뀌는데, 스포츠 모드에서의 가속감은 골프 GTI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강력하다. 이 정도면 이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별도의 드라이빙 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느껴질 정도다.

주행메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에코, 컴포트, 스마트 모드도 선택 가능하다. 연비는 주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 스포츠 모드에서 고속 주행을 하면 7~9km/L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파워를 마음껏 사용한 대가다.

수동 모드를 사용해 1단에 놓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등을 떠미는 듯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6500rpm에서 2단으로 자동 변속이 이뤄진다. 이 때의 사운드도 경쾌하고 강렬한 맛이 느껴진다. 파워풀한 주행 감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운드 튜닝이 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드라이브 모드별로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ESG)의 주행음과 변속 타이밍, 가속감을 다르게 세팅해 다양한 운전자의 취향을 고루 만족시킨다.

고속 직진 주행과 고속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뛰어난 편이다.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및 튜닝 스프링을 적용해 승차감과 선회 안정성을 높였으며, 스티어링 기어비를 높여 보다 민첩한 핸들링도 가능하다.

고성능 차량인 만큼 전문 브레이크 사이클을 증대시켜 제동성능도 강화했다.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제동 성능을 테스트 했는데, 급 브레이크시의 하중이동도 꽤 안정적이었고, 코너 진입이나 탈출시의 롤링이나 피칭도 잘 억제해 코너링의 재미도 잘 살렸다.

다만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고속도로 정속 주행 승차감은 상당히 떨어져 아쉬웠다. 전륜과 후륜 서스펜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약간 따로 노는 듯한 불편한 상하 진동이 느껴진다. 고속도로 정속 주행시의 연비는 12.2km/L 내외로 공인연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미쉐린(PS4) 썸머타이어, 빌스타인 모노튜브 속업소버, 강화스프링, 스테빌라이저 바, 강화부시 컨트롤암 등으로 구성된 튜닝패키지 옵션을 선택하면 더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하다.

K3 GT의 가격은 4도어 GT Basic(수동) 1993만원, GT Basic 2170만원, GT Plus 2425만원, 5도어 GT Basic 2224만원, GT Plus 2464만원이다. 다만 고객 선호 트림인 GT 5도어 플러스 트림에 내비게이션(142만원)과 드라이브와이즈+후측방 충돌 경고(74만원), 튜닝 패키지(93만~172만원), 선루프(49만원), 시트팩(49만원), 미쉐린 썸머타이어 등을 다 더하면 차량 가격이 3000만원에 가까워지는데, 고성능 모델이라도 준중형급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비싸게 느껴진다.
 sereno@donga.com

두바이 품은 터키 10일

A380 구간 비즈니스 왕복·ALL 특급호텔
두바이 관광·오리엔트 Express 레스토랑 정찬

2019 (1/27), (2/10, 17, 24) (3/3)

하안풍차투어 문의:02-777-6566



르노삼성차 ‘굿바이 프로모션’ 진행

르노삼성자동차는 12월 한 달 간 신차 구매 고객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추가 지원, 저금리 금융상품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굿바이 프로모션(사진)’을 통해 전 차종(마스터, 전기차 제외) 구매 시 개별소비세 0% 추가 지원, V7 내비게이션, S-Link 패키지 등 추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 제공한다. 개별소비세 0%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개별소비세 3.5%에 해당하는 금액(차종·트림별 차량 기본가격 기준)을 추가 지원하는 프로모션이다. 또한 전 차종(마스터, 전기차 제외)을 대상으로 36개월 할부 구입 시 1.99%의 저금리를 제공한다. QM3, 르노 클리오 60개월 할부 구입하면 각각 2.9%, 3.9%의 낮은 금리에 구입이 가능하다. 김재형 기자

국토교통부, 에어부산 종합점검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에 대해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4월 당시 28대를 보유한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올해 3월 25대를 보유한 진에어에 대한 종합점검 이후 세 번째다.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이 되면 증가한 운항규모에 따라 안전한 항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재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한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측은 “단편적인 법규 위반사항 확인 보다는 현재 규모에 걸맞은 안전체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욱 기자

포스코, 동반성장 3년 7771억 지원

포스코 그룹은 3년 동안 동반성장 활동에 7771억원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월3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및 중소기업중앙회,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위드 포스코 동반성장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는 10월 협력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615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과공유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904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텍,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등 4개 그룹사도 동참해 협력기업에 총 717억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김병근 기자

편집 | 김건진 기자 bong82@donga.com

“지금 아니면 못 사”…패션·뷰티, 크리스마스 한정 에디션 뜬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패션 뷰티업계에 한정판 상품 출시 붐이 불고 있다.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는 희소성과 남과 다른 것을 선호하는 차별성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에 맞춘 기획이다.

패션업계의 경우 선물용 주얼리 제품이 눈에 띈다. 이랜드월드 주얼리 브랜드 로이드는 목걸이와 귀걸이를 한 세트로 구성한 포인세티아 컬렉션, 크리스마스 장식을 모티브로 한 베이직 컬렉션 목걸이 및 커플링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한정판 에디션’을 출시했다. 또 세정의 주얼리 브랜드 디디에두보는 ‘몽파리 청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놓았다. 청블루 다이아몬드와 밤하늘의 별을 모티브로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MCM은 눈으로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롯데백화점 본점에 팝업 매장을 열고 파티룩을 선보였다.

뷰티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리틀프렌즈 홀리데이 에디션’을 한정 출시했다.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인 리틀 라이언, 리틀 어피치, 리



이랜드월드 주얼리 브랜드 로이드의 ‘크리스마스 한정판 에디션(왼쪽)’과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리틀프렌즈 홀리데이 에디션’.



사진제공 | 이랜드·LG생활건강

틀 튜브를 담은 바디케어, 클렌징폼, 핸드크림, 립케어 제품으로 구성했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는 한국의 전통 색깔과 다채로운 문양으로 밤하늘의 불꽃을 형상화한 ‘오색향연 홀리데이 컬렉션’을, 로레알그룹의 입생로랑뷰티는 금빛이 돋보이는 홀리데이 컬렉션 ‘골드 아트랙션’을 한정판으로 선보

였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12월은 1년 중 선물 수요가 몰리는 대목”이라며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함에 희소성까지 더한 소장가치를 높인 한정판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불가리 대형 트리 앞에서 셀피 찰라!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명품 브랜드 불가리와 손잡고 2일 1층 열린 광장에서 럭셔리 콘셉트의 ‘불가리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보였다. 지름 4.25m, 높이 9.3m의 대형 트리로 불가리 피오레바 주얼리 문양과 각종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